

첩자가 된 아이

김남중 지음 | 김주경 그림

학생용



교과 연계

5~6학년 [국어] 독서 단원
5학년 [사회] 1학기 1-1.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5학년 [사회] 2학기 1-2.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주제어

#고려 시대 #진도 #대몽 항쟁 #삼별초 #배중손

선정 내역

학교도서관저널 추천 도서 | 행복한 아침독서 추천 도서 | 책교실 추천 도서
서울시교육청 추천 도서 |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 도서

독서 지도안

이은주 선생님(서울 율현초등학교)

이 책을 소개합니다

1271년에 삼별초와 고려·몽골 연합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진도를 배경으로, 어른들의 전쟁에 휘말린 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몽골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던 때, 고려 또한 몽골군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렸습니다. 몽골에 항복해 버린 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삼별초는 고려 조정과 몽골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작가는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삼별초의 이름난 장수가 아닌 가난한 백성의 아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새로이 조명했습니다. 주인공 송진이가 몽골군의 첩자로 삼별초를 염탐하게 되고, 삼별초와 여몽 연합군의 싸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 평화에 대한 바람을 느껴 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펼쳐 보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제안하며……

삼별초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별초가 자신들을 해체하려는 고려 정부에 대해 사적인 이기심과 반발심으로 움직였다는 시선(삼별초의 '난')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으나, 백성들을 착취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변모한 민중 항쟁이라는 시선(삼별초 '항쟁')입니다.

이 책은 후자의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전쟁에 휘말린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도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전쟁은 목숨과 가족, 재산의 희생을 피할 길 없는 아주 참혹한 상황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역사책을 볼 때 왕과 장군의 입장으로 담담히 읽어 내려갔던 찬란한 전쟁사와 무용담이 내 삶을 감아먹을 수도 있는 끔찍한 재난으로 다가오는 것은 학생들에게 사뭇 신선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첩자가 된 아이》는 고려 시대와 대몽 항쟁에 대해 배우는 5학년 2학기에 활용하길 추천합니다. 아울러 삼별초 항쟁의 주 무대인 강화도·진도·남해안 일대를 알아보기 위해 5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학습한 우리 국토의 지리 정보를 되짚어 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10차시 수업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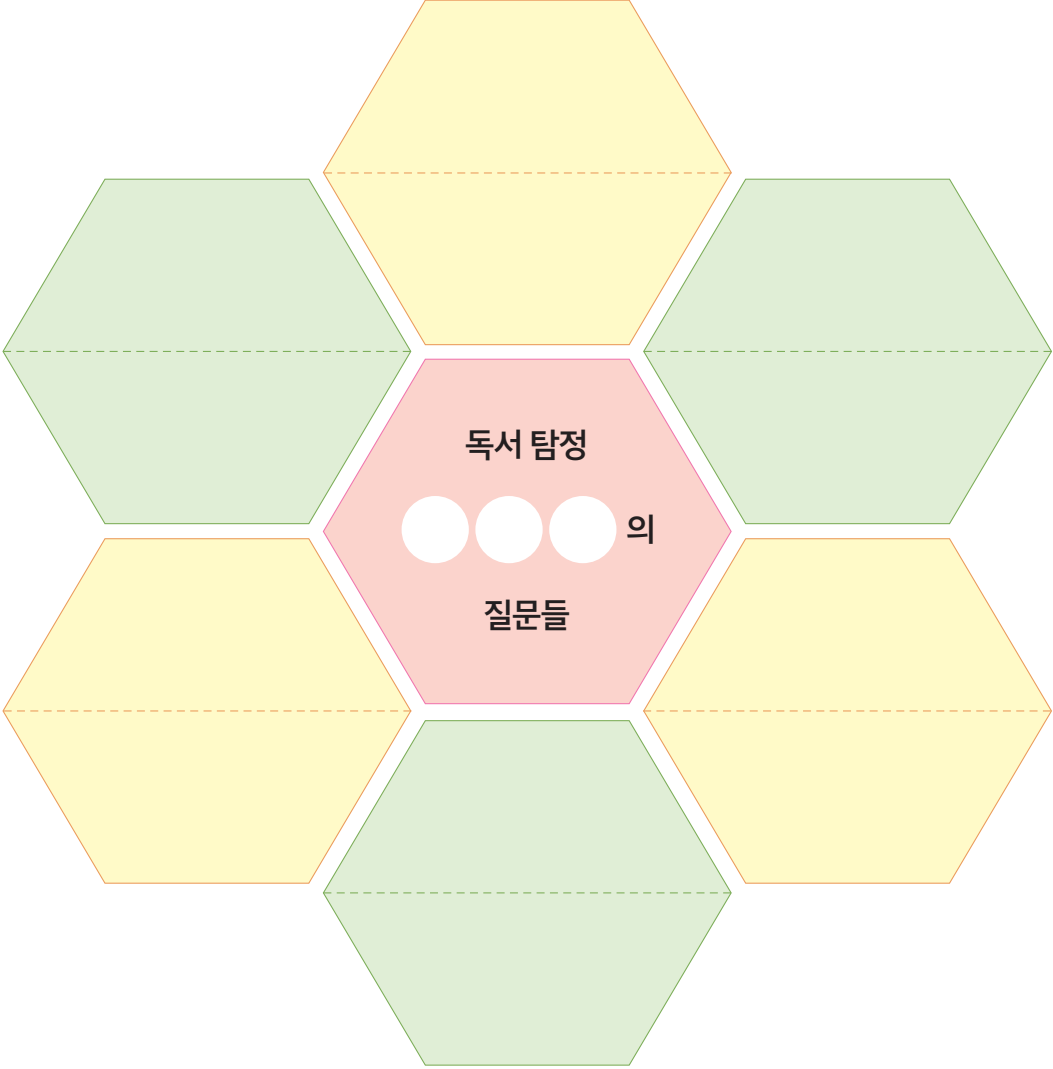
단계	활동 내용	차시
독서 준비	책 내용 짐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침입 당시 고려의 상황과 삼별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 • 제목과 표지 그림, 차례를 보며 나만의 질문 발견하기 	1차시
독서 활동	[1~3장] 읽고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유, 송진, 테무게의 머릿속 지도 그리기 	2차시
	[4~5장] 읽고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 알아보기 • 역사 인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1차시
	[6~7장] 읽고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별초의 발자취 뒤쫓기 • 삼별초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을 짐작해 보기 • 만약 삼별초가 진도에 오지 않았다면? 	2차시
	[8~10장] 읽고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별초의 마지막 항전 • 내가 만약 참전을 앞둔 군인이라면? 	2차시
독서 후	내용 곱씹기 : '바보들의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인상 깊은 대사를 모둠 친구에게 소개하기 • 삼별초 항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 배중손이 말한 '바보들의 나라'란? 	2차시

1차시: 책 내용 짐작하기

1. 참고 영상을 보고 《첩자가 된 아이》에 등장하는 삼별초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참고 영상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3 무신 정권의 특수 부대, 삼별초

2. 제목과 표지 그림, 차례를 보며 나만의 질문을 발견해 봅시다.



2~3차시 : [1~3장] 읽고 활동하기

1. 선유, 송진, 테무게의 머릿속 지도를 그려 봅시다.

- 1) 모듈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등장인물의 정보를 꼼꼼히 모아 보세요.
- 2) 세 등장인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머릿속 지도 안에 적어 보세요.
- 3) 머릿속 지도를 토대로 앞으로 각 등장인물이 할 행동과 처할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선유의 머릿속 지도



이름 :
나이 :
가족 :
사는 곳 :
기타 :

선유는 _____

송진이의 머릿속 지도

이름 :
나이 :
가족 :
사는 곳 :
기타 :



송진이는 _____

테무게의 머릿속 지도

이름 :
나이 :
가족 :
사는 곳 :
기타 :



테무게는 _____

4차시: [4~5장] 읽고 활동하기

1. 이야기에 속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 1) 책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을 적은 다음, 그 가운데서 실존했던 역사 인물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 2) 삼별초, 고려 조정, 몽골 중 어디에 속한 인물인지 분류한 뒤 같은 색으로 동그라미를 칠해 보세요.

2. 내가 만약 역사 인물로 영화 <첩자가 된 아이>의 3종 세트 포스터를 만든다면? 각각의 인물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 보고, 10자 이내의 말로 그 인물의 입장이나 신분을 표현해 봅시다.

<삼별초를 위한 10자 카피>

<고려를 위한 10자 카피>

<몽골군을 위한 10자 카피>

5~6차시: [6~7장] 읽고 활동하기

1. 참고 영상을 통해 삼별초 세력이 확장되어 간 과정을 살펴봅시다.

- 참고 영상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4 삼별초, 진도에 정부를 세우다
- 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6 삼별초, 바다를 장악하다

2. 삼별초에 대한 일반 백성의 생각을 헤아려 봅시다.

1) 당시 고려 백성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나요?

~~~~~

~~~~~

2) 삼별초에 대한 일반 백성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책 속의 이야기를 통해 정리해 봅시다.

삼별초를 지지하는 백성		삼별초를 지지하지 않는 백성	
주장		주장	
책 속에서 찾은 근거		책 속에서 찾은 근거	

7~8차시 : [8~10장] 읽고 활동하기

1. 참고 영상을 통해 여몽 연합군의 진도 공격과 삼별초의 마지막 항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참고 영상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7 여몽 연합군의 진도 공격
- 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9 삼별초의 항전, 막을 내리다

2. 내가 만약 참전을 앞둔 군인이라면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중요한 임무를 앞둔 송진이는 선유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집에서 마지막 밥을 먹는 기분이 이렇까?”(본문 133쪽) 하는 생각에 젖어듭니다. 내가 만약 참전을 앞둔 군인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고, 또 어떤 하루를 보낼지 상상하여 정리해 봅시다.

꼭 먹고 싶은 음식	이유	먹었을 때 기분은 어떨까?
하고 싶은 일	이유	기분은 어떨까?

9~10차시 : 내용 곱씹기 - '바보들의 나라'

1.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를 모두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Three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2. 삼별초 항쟁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무인 정권을 수호했던 삼별초가 원종에게 보복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있어.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몽골에 대한 항쟁으로 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나 백성보다는 삼별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는 얘기가야.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도 결국은 몽골의 침략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백성들과 함께 한 투쟁이었다는 주장도 있어. 무능한 고려 조정 에 실망한 백성들의 뜻을 모아 자주적으로 몽골과 맞서 싸웠다는 거지.

2. 《첩자가 된 아이》에 나오는 다음 글을 참고하여 배중손이 말한 ‘바보들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도 촌사람이다. [중략] 진도로 내려온 사람들 대부분이 촌사람 아니면 못난이들이야. 강화도에서 잘살고 권세 있던 부자와 벼슬아치들은 다 개경으로 가 버렸어. 그 사람들은 몽골에 나라가 넘어가도 여전히 잘살 거다. [중략] 똑똑해서 제 뱃속만 생각하는 놈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우리 황제도 고려 왕실에서 푸대접받던 분이야. 삼별초에서 대접받던 장수들은 일찌감치 개경으로 뺐어. 남은 군사들은 배고프던 졸병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몽골에 대항하다니 정말 바보 같지 않나? 우린 바보들의 나라를 세운 거야.” [중략]

“다 바보들이에요. 개경이나, 진도나.”

(본문 111~112쪽)

1) 배중손과 송진이의 대화에서 ‘바보’는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나요? 서로 비교해 보세요.

~~~~~

~~~~~

~~~~~

2) 배중손이 말하는 ‘바보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선언문을 만든다면?

### 바보들의 약속

하나,  
둘,  
셋,

## • 관련 자료 및 답사지 •

### 관련 도서

- 《삼별초 항쟁 가까이》, 서찬석, 어린이, 2007.
- 《왜 삼별초는 끝까지 싸웠을까?》, 강재광, 자음과모음, 2011.

### 관련 영상

- 1차시\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3 무신 정권의 특수 부대, 삼별초 <https://youtu.be/4kyO63nlhdk>
- 5~6차시\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4 삼별초, 진도에 정부를 세우다 <https://youtu.be/NVGvBecRNos>  
\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6 삼별초, 바다를 장악하다 <https://youtu.be/s1av8nLvye4>
- 7~8차시\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7 여몽 연합군의 진도 공격 <https://youtu.be/McvkMylEag4>  
\_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109 삼별초의 항전, 막을 내리다 <https://youtu.be/mOI60WUUEGo>

### 관련 답사지

- 강화산성(국가 지정 사적 제132호) : 인천 강화군 강화읍을 둘러싸고 있는 고려 시대 산성입니다. 본래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대해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쌓은 이 성은, 1259년에 몽골과 강화를 맺는 조건으로 모두 헐렸습니다. 그러다 조선 시대에 일부만 다시 쌓은 것을 보수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진도 용장성(국가 지정 사적 제126호)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고려 시대 산성으로,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위해 쌓아 올린 성곽입니다. 지금은 용장산 기슭에 약간의 성벽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성 안에는 궁궐 터가 남아 있습니다.
-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국가 지정 사적 제396호) : 삼별초의 최후 항전지로, 토성이 남아 있고 전시관과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진도에서 크게 패한 삼별초는 제주도로 건너가 향파두성을 쌓고 항전했으나, 원종 14년 4월에 전원이 순의하였습니다.

